

# 호남고속철 2단계 전 구간 '자갈철길' 위기

###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총사업비 제한 걸림돌 작용 조오섭 의원 "경제성·환경성 좋은 콘크리트 설계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유지 보수 비용이 낮고, 안전성·환경성이 뛰어난 '콘크리트궤도' 대신 '자갈도상'으로 설계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은 15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구간이 콘크리트궤도의 뛰어난 경제성과 환경성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제한 때문에 전 구간 자갈궤도로 설계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이하 KR)은 현재 일반철도 서해선, 도담~영천, 영천~신경주, 원주~강릉 등 설계 속도 250km/h의 4개 구간에 대한 궤도설계를 끝마쳤고, 고속철도 구간은 설계속도 350km/h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계획 중이다. 일반철도 4개 구간 중 전체가 콘크리트궤도로 설계된 구간은 서해선이 유일했고 도담~영천(터널·교량), 영천~신경주(터널), 원주~강릉(본선)이 콘크리트궤도로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국토부가 애초 기본설계

에서는 전 구간 자갈도상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KR은 전 구간 콘크리트 구간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KR이 지난 2019년 6월 KRCT와 한국철도기술 연구원에 맡긴 '콘크리트궤도 확대 시행을 위한 적용기준 마련 용역'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콘크리트궤도는 초기 건설비가 12억(km당)로 자갈도상 8억에 비해 높지만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LCC를 고려하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설계속도 230km/h 이상 선로에서는 전 구간 콘크리트궤도를 적용하는 것이 LCC 측면에서 유리하고 자갈도상에 비해 고속운행시 열차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갈비산 및 동절기 설빙낙하 사고 예방에도 좋은데다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R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전 구간 콘크리트궤도로 설계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문제로 전 구간 자갈도상으로 궤도설계를 해야할 상황이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5년간 폭염에 의한 열차서행이 265건에 달하고 2018년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와 같이 좌궤현상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KR은 고속철도의 궤도 안전성을 높이는 콘크리트궤도 설계를 반드시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다음달 21일 필기시험

### 출자·출연 9개 기관 66명 선발

광주시는 출자·출연 공공기관 하반기 직원 채용을 위한 통합 필기시험을 11월 21일 시행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통합 채용은 공공 기관별 채용을 시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하반기 선발 예정 인원은 도시철도공사 18명, 환경공단 15명, 복지재단 1명, 여성가족재단 3명, 도시공동체 센터 3명, 문화재단 6명, 정보문화산업진흥원 5명, 관광재단 12명, 국제기후환경센터 3명 등 9개 기관, 66명이다.

응시 희망자는 11월 2~6일 광주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관 또는 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기관별로 12월 중 서류, 면접 등 전형을 거친다. 김종화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시험장별 시험 인원을 15~16명으로 축소하고 수험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도 빈틈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시티투어 버스 17일 운행 재개한다

### 요금 50% 할인... 다음달 말까지 운영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광주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을 재개한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주요 관광지를 도는 순환형 시티투어 3개 노선을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무등산 지질명소 투어'는 토요일 오전 9시 송정역을 출발해 화순적벽, 호수생태원, 환벽당 전통공연 등을 체험하는 코스다. '전남권 문화관광 투어'는 토요일 송정역에서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출발해 양림동 역사문화 마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공연 마루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빛고를 남도 투어'는 토요일 오전 9시에 광주역에서 출발해 송정역, 월봉서원, 한림 자연생태공원, 영광 백제 불교 최초도래지를 거쳐 배수해안도로까지 운행한다. 광주시는 테마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도 30일 재개해 12월 말까지 운행하기로 했다. 시티투어는 연말까지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테마형 5000원, 순환형 1.3코스 4500원, 2코스 1500원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국한우능력평가' 전남 한우, 대통령상

### 영암 김용복 농가 최고상

최근 충북 음성에서 개최된 '제23회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영암군 김용복 농가가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는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축개발협회, 전국한우협회가 공동 주최해 지난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됐으며 올해 23번째를 맞이했다. 올해 한우능력평가대회는 전남지역 23개 농가를 비롯 전국 255개 농가가 참여해 외모심사와 도축, 최종평가 등이 치러졌다. 그 결과 영암군에서 한우 195두를 사육중인 김용복 농가의 출품축이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영암군 김용우 농가가 농촌진흥청장상을, 영암군 서승민 농가가 한국농축개발협회 회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영암군 김용복 농가가 출품한 한우는 출품 당시 체중은 863kg이었으며, 도축 체중은 569kg으로 620만원에 낙찰돼 일반 한우고기의 4배가 넘는 kg당 11만 원을 기록했다. 한편 전남도는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5회(15·16회 영암 서승민 농가, 19회 곡성 박희애 농가, 22회 고흥 박대화 농가, 23회 영암 김용복 농가) 수상하는 등 매년 최고성적을 거두며 전남 한우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마스크 쓰고 체력 측정 15일 오전 광주 북구 경신중학교에서 북구체력인증센터의 '찾아가는 체력 인증의 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오랜만에 운동장에 나와 체력 측정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도, 회의실·주차장 등 '공공자원' 도민과 공유

전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발맞춰 지역의 공공자원을 도민에게 적극 개방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5일 '현재 '공유누리' 포털사이트에 도내 공공기관의 회의·강의실, 주차장 등 1천 265건의 시설과 물품 등이 등록돼 있으며,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원 대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유누리'는 행정안전부가 정부혁신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구축한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통합포털사이트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물품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초 도입한 제도다. 대여를 희망한 경우 공유누리 누리집(www.eshare.go.

kr)을 통해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공공개방자원을 쉽고 빠르게 검색 후 예약할 수 있다. 지도서비스길찾기, 인근 자원검색 등 지도서비스도 제공돼 사용이 편리하다. 현재 전남지역 사용 가능한 공공개방자원은 시설·공간 184개를 비롯 회의실 348개, 강의실·강당 34개, 체육시설 115개, 주차장 469개, 물품 114개, 교육·강좌 1개 등 총 1265개에 이르고 있다. 정광현 전남도 총무과장은 "도민편의 향상과 공공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개방이 가능한 공공자원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시군에 배포하는 등 많은 도민들이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